

# “우리시대 이야기 담은 대작 나올 수 있게 도움주고 싶었죠”

김건형 남악하나메디컬센터 원장, 광주시립미술관 대작 후원 결실  
박선제·김남술·김두석 작가 협업 1000호 ‘어머니의 강-꿈여울’ 탄생

무등산과 영산강은 광주·전남의 진산이자 젖줄이다. 광주·전남을 상징하는 자연 그 자체가 바로 무등산이며 영산강이다. 무등산은 광주와 담양, 화순이 접해 있으며 영산강은 담양에서 발원해 장성과 광주, 나주, 무안, 영암 등을 지나 서해 바다로 흘러든다.

무등산은 ‘등급이 없는 고귀한 산’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꽃을 피운 영산강 물굽이에는 민초들의 시냇고단한 삶의 이야기와 질박한남도 문화가 깃들여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1, 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무등에서 영산으로’ (19일까지)는 무등산과 영산강이 지니는 인문학적, 예술적 의미와 사유, 미래까지 아우르는 뜻 깊은 전시다.

전시에는 무등산과 영산강을 소재로 작업한 작가 6명을 비롯해 영산강을 3년 간 담은 사진가 6명, 무등공부방 아카이브 작가 4명 등 총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전시실에 들어서면 우측 벽면에 걸린 대작이 시선을 압도한다. 1000호에 이르는 ‘어머니의 강-꿈여울’이라는 작품은 박선제, 김남술, 김두석 작가 3인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 같은 대작이 완성된 데는 김건형 남악하나메디컬센터 원장의 도움이 컸다.

올해까지 5년째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는 김 원장은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꾸준한 창작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누군가 예술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에 앞서, 김 원장은 지금까지 세 작품(1000호) 창작을 지원한 바 있다. 목포 풍경을 그린 ‘대반동 풍어도’, ‘바다를 품은 서산동’ 등을 작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 이번 ‘어머니의 강-꿈여울’은 가로 7m, 세로 2.4m에 이를 만큼 대작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목포와 인근 영산강 풍경을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총 8개 작품을 제작하기로 했다”며 “한 작품당 1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번째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한 개인이 지역 풍경을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후원자와 작가들이 공동으로 상의하고 대화하며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각자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완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제 박선제는 “1000호에 이르는 작품 제작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며 “작가 3명이 함께 힘을 모으고 원장님도 지원을 해주신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작업 주제는 목포였지만 이번에



김건형 원장



박선제·김남술·김두석 작가 3인의 협업으로 탄생한 ‘어머니의 강-꿈여울’.

는 영산강을 모티브로 작업에 임했다”며 “작품이 1000호에 달해 부담감이 없진 않았지만 이전의 경험을 살리다보니 점차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다”고 했다.

작가들은 처음 자신들 터전인 목포 풍경을 모티브로 삼았다. 최근에는 그 범위를 점차 확장, 우리시대의 의미있는 연작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어머니의 강-꿈여울’은 영산강과 주변 삶을 아우르는 한편, 갖가지 생명들과 역동적인 인문의 서사를 품고 있어 한편의 ‘영산강 파노라마’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김남술 작가는 “김 원장님 후원으로 급격적인 부분이 해결돼 무엇보다 고맙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영산강 상류 부분, 즉 용소부터 담양까지의 풍경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강-꿈여울’은 무안지역 영산강을 이르는 다른 명칭인 몽탄강(夢灘江)을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명칭이 시적이다. ‘어머니의 강-영산강’이 더더욱 우리의 강이자, 남도의 강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품 하단에는 지역의 다양한 식물과 꽃 등이 자리한다. 가운데는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과 농사도구가, 위쪽에는 가재와 게 등 바다 생물들이 형상화돼 있다. 작품 오른쪽에는 무안가 간절히 기원하는 어머니 모습이 초점화돼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굽어쳐 흐르는 영산강 물줄기와 어우러지며 장엄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두석 작가는 “몽탄이 고향인 내게 어린 시절 영산강은 놀이터이자 어머니와 같은 강이었다”며 “원장님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세 명 작가가 즐겁게 협업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1전시실에서는 광주 지역민들의 삶과 멋,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무등산을 소재로 한 회화와 사진작품을 만날 수 있다.

2전시실에는 5명의 영산강 사진그룹이 3년간 사계절을 담은 작품이 파노라마처럼 전시돼 있다. 담양에서부터 목포 하구언까지 답사하며 찍은 사진은 영산강의 풍광, 유적 등 다채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전남인들의 삶의 토대이자, 예술인들에게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마음의 고향으로 남은 무등산과 영산강의 미학적, 인문학적, 철학적 의미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엄마의 그릇에 담은 ‘엄마의 꿈-딸의 바람’

류미숙 기획전, 7월 25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히스토리

생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엄마’에 대한 딸의 바람을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7월 25일까지 재단 3층에서 제7회 히스토리 기획전 ‘엄마의 꿈-딸의 바람’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류미숙 작가가 5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썼던 그릇들을 캔버스 삼아 ‘엄마의 음식들’을 그려 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화폭에는 유독 인간의 ‘손’이 도드라진다. 류 작가는 “그동안 엄마에게 받기만 했고 무언가를 드린 적이 별로 없던 것 같다”며 “엄마에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 받았던 마음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손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손 이외에도 소박한 주방도구, 화려한 색채 등이 캔버스를 수놓는다. 접시, 그릇, 국자 등을 비롯해 다양한 도구들은 엄마의 삶을 이야기하는 매개체처럼

다가온다. 그 화폭에는 유난히 파스텔 톤 이미지가 도드라지는데, 몽환적인 색채들은 ‘꿈’이라는 전시회 주제와 맞물려 아련한 느낌을 준다.

특히 ‘엄마의 꿈’ 연작에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 접시를 붙여 화폭을 ‘3D’로 구현한 점은 이목을 끈다. 엄마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일상적 기물인 접시를 콜라주한 것. 접시 안에는 가족사진, 작가의 유년시절 사진을 비롯해 방벽을 오르는 남자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류 작가의 엄마가 생전 꿈꾸던 비행, 등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다가온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엄마와 딸의 삶을 다룬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생전 못 다 이룬 엄마와 딸의 바람이 전시물에 투영돼 관람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무료 전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엄마의 꿈’



조대극회 124회 정기공연 ‘실종’ 리허설 모습. <조선대 극예술연구회 제공>

## ‘실종’된 사회초년생의 꿈...나의 모습은

조선대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실종’ 24~25일 미로센터 극장2

‘무조건 열심히 해요, 열심히!’ 대학을 늦게 졸업한 ‘학생’은 어느 국가기관의 사무실에 업무 도우미로 채용돼 출근한다. 학생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작가의 꿈을 키워 왔지만,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주변인들은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라’는 조언을 한다.

학생은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며 조금씩 주위의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아 나가지만, 동시에 작가의 꿈과 멀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꿈과 현실의 괴리감에 빠진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조선대 극예술연구회(조대 극회)가 제124회 정기공연 ‘실종’을 오는 24~25일(오후 3시, 7시) 총 4회에 걸쳐 미로센터 극장2에서 펼친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살아남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

을 압축한 시놉시스는 꿈과 현실,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청춘의 자화상처럼 다가온다.

“적어도 난 스스로 작가라고 생각해요”(작중 ‘학생’의 대사 일부)

작중 ‘학생’(김민교 분)은 정해진 사회 시스템 속에서 안정만을 추구하는 ‘학생2(오윤지)’의 생각이 반발하며 이처립 말한다. 공연은 획일화된 세상에서 진정한 자아가 ‘실종’되어 버린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형상화한다. 7급 역에 안정원, 6급에 김도현, 5급 역에 조명주가 출연할 예정이다. 극작에 최민애, 연출에 박현진.

조대 극회 황경민 회장은 “편견 속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공연은 2~30대 사회 초년생,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 섬진강 도깨비마을에 울려 퍼지는 요를레이~ 요를레이디~

25일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

섬진강 도깨비마을(총장 김성범)은 우리나라 도깨비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후 문화학교를 비롯해 생생문화재, 숲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왔다.

섬진강 도깨비마을이 제10회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를 연다. 오는 25일(오후 3시) 곡성군 민화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함께 맞물려 진행된다.

참가팀 편면이 다채롭다. 스위스 우르스와시모네를 비롯해 일본 이토 게이코, 나가사와 토모야가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알펜로제어린합창단, 알폰이랑요들이랑, 광주연시안요들클럽, 동요요들이랑요들클럽, 알프스마파파, 알펜로제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월드요들페스티벌은 요들뿐만 아니라 이색 악기인 알폰, 외르켈리, 카우벨 연주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요들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한편 섬진강 도깨비마을은 곡성의 어린이 노래패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에 참가한 팀들.

<섬진강 도깨비마을 제공>

인 노래패비아이들, 알펜로제어린합창단, 한국 어린이요들합창단 등과 함께 창작요들음반 4개를 생산했으며 2013년 광주연시안 김숙남 회장 기획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동요요들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김성범 섬진강 도깨비마을 총장은 “이번 월

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가 장미축제 기간에 열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하면 좋을 것 같다”며 “그 동안 곡성에서 요들페스티벌이 다수 개최된 데서 보듯 이제 곡성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강석우, 삶이라는 꽃’ 광주예술의전당 11일 음악산책

화요일 오전에 만끽하는 ‘마티네 콘서트’의 여유, 일상에 ‘삶과 문화’라는 향기를 더하는 음악산책.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강석우, 삶이라는 꽃’이라는 주제로 오는 28일(오전 11시) 전당 소극장에서 11시 음악산책 콘서트를 펼친다.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 김이곤 등이 콘서트 가이드로 출연해 온 ‘11시 음악산책’은 화요일 오전마다 문화예술에 얽힌 비화를 듣고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이드(해설자)로 배우 강석우(사진)가 출연할 예정이다.

CBS라디오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DJ로 활동하며 클래식과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는 강 배우는 직접 선곡한 클래식을



담은 음반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등을 발매해 이목을 끌었다. 클래식과 삶을 엮은 에세이 ‘강석우의 청춘 클래식’ 등을 발간해 클래식 전도에 앞장서고 있다.

그가 직접 작사·작곡한 가곡 ‘4월의 숲속’, ‘내 마음은 왈츠’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오페라 아리아 대본을 읽은 뒤에 창작한 ‘그리움조각’을 비롯해 소설가 최인호의 시에 곡을 붙인 ‘밤눈’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